

## 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수치심과 분노의 매개효과\*

조 아 라

송과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지원단

박 재 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 행동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분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9세 성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모두 서로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수치심과 분노는 모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경로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수치심의 완전매개를 통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경로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분노의 완전매개를 통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경로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수치심, 분노의 순차매개를 통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20~39세의 여성으로 연령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내현적 자기애가 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치심과 분노의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폭식행동, 수치심, 분노, 여성

\* 본 연구는 제1 저자 조아라(2019)의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정서 경험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박재우,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교수, (0672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Tel : 02-584-6851, E-mail : thanotos@kcgu.ac.kr

현대 사회에서 섭식 행동은 생존을 위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고전적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생물학적 욕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라도 발생하며 이러한 섭식 욕구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Sung(2010)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각성 상태를 접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각성 상태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음식 섭취로 반응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거식과 폭식과 같은 부정적인 섭식 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섭식 장애가 현대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심리 장애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김정옥, 2000). 건강 보험 평가 심사원(2018)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 통계 100선’에 의하면 폭식증으로 치료 받는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6년에 폭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559명이다. 이 중 남자는 449명(12.6%), 여자는 3,110명(87.4%)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환자 수를 연령대 별로 분석해본 결과 20~39세가 1797명으로 전체 여성 환자의 5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폭식행동의 정의는 (1)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시간 동안 먹는 양보다 확실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2) 먹는 동안 조절 능력의 상실감 - 먹는 것을 멈출 수 없거나,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조절할 수 없는 느낌 - 을 경험하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폭식행동은 폭식 장애(Binge Eating Disorder), 신경성 폭식증(Bulimoi Nervosa),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급식 및 섭식

장애(Other Specified Feeding or Eating Disorder)에서 나타나는 섭식 장애 군의 주요한 증상 중 하나이며, 폭식 장애의 전구 증상이라 볼 수 있다(Stephen, Rose, Kenny, Rosseli-Navara & Weissman, 2014).

폭식행동은 비만 및 섭식 장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적응 적 심리 문제를 유발한다(김미리혜, 2008). 폭식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충동 및 통제 문제, 낮은 자존감, 삶에 대한 효능감 상실, 가족 내 갈등, 부적절한 의사소통, 분노와 적대감의 표현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어 왔다(김중운, 양민정, 2015; 윤화영, 1996; Herzog, Keller & Larvori, 1988; Schlesier-Stropp, 1984; Williamson, Kelly, Davis, Ruggiero & Bloutin, 1985). 폭식 행동은 초기에 발견하고 중재하게 되면 섭식 장애로 진단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치료하지 않으면 뚜렷한 섭식 장애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Tanofsky-Kraff et al., 2011). 폭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며, 폭식을 막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김중운, 양민정, 2015).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정서 조절곤란, 인지적 역기능, 신체 불만족, 감정 표현 불능증, 정서 강도, 정서지능, 충동성, 강박성, 완벽주의, 감각추구, 자기에 등이 주목 받아 왔다(손은정, 2013; Johnson, Cohen, Kotler, Kasen & Brook, 2002; Van Strien, 2000). 그 중 자기에는 정신 분석 이론에서 폭식행동과 같은 섭식 장애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Van Strien, 2000). Kohut(1971)은 자기에를 가진 사람들이 방어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자기(self)를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며, 이 때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음식물을 통해 끊임없이 충족하려는 시도로 폭식행동을 보인다고 가정했다.

자기애는 현상적 관찰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이 되며, 보편적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누어진다(Kohut, 1971).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애적 성향이 외부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며 타인의 찬사를 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칭찬과 힘에 대한 탐색이 있지만 열등감을 느끼고, 비판과 현실적 좌절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평가예민성’을 특징으로 가진다(Ahktar, 1989).

본 연구에서 폭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변인 중에 내현적 자기애에 주목한 이유는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인 수치심과 분노가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내현적 자기애의 ‘평가예민성’은 만성적인 분노를 경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이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치심의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왔다(김진순, 2008).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은 외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에 비해 우울이나 분노, 수치심, 불안, 공격성 등의 역기능적인 정서를 더 경험하며 (강선희, 정남운, 2002; 이성욱, 송현주, 2011),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사람들보다 정서 관련 경험을 더 크게 느끼는데 이러한 정서 경험은 폭식행동과 관계가 있다(강영복, 2002).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살 찌는 것에 대한 공포, 외모를 통해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성향, 높은 신체 불만족과 관련하여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려는 시도를 하지만 무리한 섭식 통제와 다이어트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서

폭식행동을 하게 된다고 밝혀졌다(신동주, 정남운, 2007).

폭식을 유발하는 부정 정서들을 많이 경험하도록 하는 정서 중 하나는 수치심이다.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수치심이 유발되며(한혜림, 2004),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쉽게 경험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한혜림, 2004). 선행 연구에서도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이상 섭식 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Burney & Irwin, 2000; Hayaki, Friedman & Brownell, 2002),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폭식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민기, 2010). Manjrekar, Schoenleber과 Mu(2013)의 연구에서도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 정서를 견뎌내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식사 제한이나 폭식과 같은 역기능적인 섭식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ewis(1971)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과 분노는 일차 감정과 이차 감정으로 함께 경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로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Tagney 등(1996)은 수치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 감정을 더 많이 보고하며 분노 감정에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될 때 수치심에 의해 웅대한 자아상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분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애적 분노’라고 부른다(Thomaes, Stegge, Olthof, Bushman & Nezleek, 2011).

분노는 폭식행동을 선행하여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으며(Milligan, Waller & Andrews, 2002; Vince & Waller, 2008; Zeeck, Stelzer, Linster, Joes & Hartmann, 2011), 자기가 높을수록 분노 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nn & Biaggio, 1989). 김진순(2008)의 연구에 의하면 실패 피드백 이후의 분노 증가량은 내현적 집단이 외현적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분노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방법 중 하나로 폭식행동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ielberger, 1996). 또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억압했던 분노를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백승혜, 현명호, 2008), 섭식 장애 환자들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도 섭식 장애 환자들이 분노 표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방략으로 폭식행동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rug et al., 2008; Waller et al., 2003). 신경성 폭식증 환자는 분노를 자신이나 대상에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Fahy & Eisler, 1993), 폭식 행동은 상태 분노와 분노 표출 및 분노 억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ilbert & Tuschen-Cafier, 2007).

부정 정서와 폭식에 대한 주제는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되어왔는데 이는 상담 장면에서 폭식 증상이 있는 내담자의 부정 정서를 다루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내현적 자기와 폭식 행동 그리고 부정 정서와 관계에 대해 살펴본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가 총체적인 개념으로 측정되거나, 대표적인 부정 정서

인 우울을 통해 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폭식행동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가 수반되며(Heartherton & Baumeister, 1991), 특히 수치심과 분노는 내현적 자기애자와 폭식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핵심적 정서이므로 수치심과 분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수치심과 분노가 폭식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정서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분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폭식행동이 발생하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폭식행동의 치료 적 개입 및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치료 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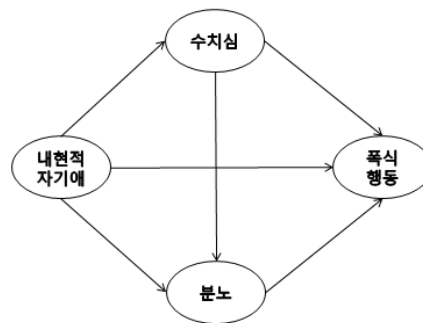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39세의 성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은 인터넷 설문 형식으로 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30.3세, 표준편차는 5.1로 20~29세가 150명(50%), 30~39세가 150명(50%)이었으며, 20대 여성과 30대 여성 간에 연구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참여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76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이 53명(17.7%), 고졸 이하 51명(17%), 대학원 이상이 20명(6.7%)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174명(58%)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이 44명(14.7%), 전문직이 35명(11.7%), 학생이 32명(10.7%), 자영업이 9명(3%), 생산직이 6명(2%)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는 수도권 186명(62%), 영남권 65명(21.6%), 충청권 24명(8%), 호남권 19명(6.3%), 강원권 6명(2%)이었다.

#### 측정 도구

#####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바탕으로 비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의 문항은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 요인과 외현적 자기애와의 공통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 요인은 목표 불안정 9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 8문항이며, 외현적 자기애와의 공통 요인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9문항,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이다. 총 4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45점에서 225

점이고 점수가 높을 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보고한 전체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 **폭식증 검사 개정판 (Bulimia Test Revised: BULIT - R)**

폭식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mith와 Thelen(1984)이 개발하고 Thelen과 Farmar, Wondelich, Smith(1991)가 수정한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mia Test Revised: BULIT - R)을 윤화영(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폭식증 검사 개정판은 폭식 행동을 측정하는 28개 문항과 체중 조절 행동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 5점 척도이다. 대부분의 폭식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을 측정하는 8문항을 제외하고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28문항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2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하 28점부터 최고 140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폭식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대생의 경우 원 척도의 점수가 82점 이상일 때 폭식행동 경향성을, 102점이 넘을 때 신경성 폭식증 진단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helen et al., 1991). 국내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의 경우 88점이 폭식행동 경향성을 나타내는 절단점이고, 121점이 넘으면 섭식 장애 진단과 치료를 고려하는 점수로 밝혀지고 있다(윤화영, 1996). 원 척도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7이었으며 윤화영(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시기 1에서 .93, 시기 2에서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 수치심 경험 척도(Experience of Shame Scale: ESS)

Andrews, Qian과 Valentine(2002)이 제작한 수치심 경험 척도(Experience of shade: ESS)를 조효진(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데 비해 ESS는 구체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는 정서적 상태의 수치심을 측정한다. ESS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격적 수치심, 행동적 수치심, 신체적 수치심으로 하위요인이 나뉜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심하게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은 25~100점이다. 이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Andrews 등(2002)의 연구에서 .92이었고, 조효진(2008)의 연구에서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K)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STAXI Korean Version)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특성 분노(Trait anger) 10문항, 상태분노(State Anger) 10문항, 분노-표출(Anger-Out) 8문항, 분노-억제(Anger-in) 8문항, 분노-조절(Anger-Control) 8문항,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양식 24문항을 제외한 특성 분노 10문항, 상태분노 10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alpha$ )는 특성분노 .87, 상태분노 .9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의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 경로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자료의 정상성(normality)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 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 간의 Pearson 상관 계수를 산출한 뒤, 그 결과를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와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들의 왜도 값의 범위가 -.382에서 1.074이고 첨도 값의 범위가 -.431에서 .526으로 자료의 측정치들이 다변량 정규 분포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표 1. 측정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측정변인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3-1	3-2	4
1.내면적자기애	1													
1-1.목표불안정	.72 <sup>**</sup>	1												
1-2.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70 <sup>**</sup>	.24 <sup>**</sup>	1											
1-3.취취/자기중심성	.60 <sup>**</sup>	.22 <sup>**</sup>	.51 <sup>**</sup>	1										
1-4.괴민/취약성	.89 <sup>**</sup>	.57 <sup>**</sup>	.55 <sup>**</sup>	.39 <sup>**</sup>	1									
1-5.소심/자신감부족	.63 <sup>**</sup>	.43 <sup>**</sup>	.21 <sup>**</sup>	.03	.62 <sup>**</sup>	1								
2.수치심	.57 <sup>**</sup>	.41 <sup>**</sup>	.35 <sup>**</sup>	.20 <sup>**</sup>	.59 <sup>**</sup>	.47 <sup>**</sup>	1							
2-1.성격적수치심	.51 <sup>**</sup>	.36 <sup>**</sup>	.29 <sup>**</sup>	.22 <sup>**</sup>	.55 <sup>**</sup>	.41 <sup>**</sup>	.92 <sup>**</sup>	1						
2-2.행동적수치심	.51 <sup>**</sup>	.39 <sup>**</sup>	.33 <sup>**</sup>	.13 <sup>*</sup>	.55 <sup>**</sup>	.43 <sup>**</sup>	.85 <sup>**</sup>	.65 <sup>**</sup>	1					
2-3.신체적수치심	.43 <sup>**</sup>	.31 <sup>**</sup>	.28 <sup>**</sup>	.11	.46 <sup>**</sup>	.37 <sup>**</sup>	.78 <sup>**</sup>	.61 <sup>**</sup>	.58 <sup>**</sup>	1				
3.분노	.40 <sup>**</sup>	.23 <sup>**</sup>	.28 <sup>**</sup>	.49 <sup>**</sup>	.37 <sup>**</sup>	.05	.44 <sup>**</sup>	.49 <sup>**</sup>	.28 <sup>**</sup>	.29 <sup>**</sup>	1			
3-1.특성분노	.42 <sup>**</sup>	.20 <sup>**</sup>	.37 <sup>**</sup>	.49 <sup>**</sup>	.39 <sup>**</sup>	.03	.42 <sup>**</sup>	.40 <sup>**</sup>	.37 <sup>**</sup>	.26 <sup>**</sup>	.77 <sup>**</sup>	1		
3-2.상태분노	.26 <sup>**</sup>	.18 <sup>**</sup>	.12 <sup>*</sup>	.34 <sup>**</sup>	.24 <sup>**</sup>	.04	.32 <sup>**</sup>	.41 <sup>**</sup>	.13 <sup>*</sup>	.22 <sup>**</sup>	.87 <sup>**</sup>	.37 <sup>**</sup>	1	
4.복식행동	.35 <sup>**</sup>	.23 <sup>**</sup>	.23 <sup>**</sup>	.33 <sup>**</sup>	.29 <sup>**</sup>	.15 <sup>**</sup>	.51 <sup>**</sup>	.51 <sup>**</sup>	.31 <sup>**</sup>	.49 <sup>**</sup>	.43 <sup>**</sup>	.38 <sup>**</sup>	.33 <sup>**</sup>	1
평균	136.79	28.50	28.67	23.12	30.85	25.64	55.12	24.64	22.04	8.99	48.08	30.07	18.00	62.70
표준편차	19.68	6.37	5.29	5.18	5.95	4.73	14.08	7.68	5.43	3.07	13.47	7.07	9.17	18.59
왜도	.089	.001	.143	.316	.135	-.382	.434	.545	.266	.450	.484	-.184	1.074	.377
첨도	.526	.039	.078	.488	-.070	.487	-.043	.276	-.270	-.431	-.254	-.265	.356	-.252

주. \* $p < .05$ ; \*\* $p < .01$

자기애는 폭식행동( $r=.35$   $p<.01$ ), 수치심( $r=.57$   $p<.01$ ), 분노( $r=.40$   $p<.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폭식행동은 수치심( $r=.51$   $p<.01$ ), 분노( $r=.43$   $p<.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수치심은 분노( $r=.44$   $p<.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내현적 자기애, 폭식 행동에 대해서 문항 묶음(item-parceling)을 실시한 뒤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타당화나 검사 개발과 같이 개별 문항의 수행 정도와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 이라면 개별 문항이 구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 등의 개별 문항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만, 연구의 목적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고 추정하는 것, 즉 구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면 문항 묶음 수준에서만 측정 모형이 성립 되어도 큰 문제

는 없다(Little, Rhemtulla, Gibsom & Schoemann, 2013; Matsunaga, 2008). 문항 묶음을 사용하면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모수 추정이 가능하고, 모형 적합도가 향상되며, 분포의 비정규성 문제가 줄어드는 등의 통계적 이점이 있다(Bandalos, 2002).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다차원 구조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영역 대표성 방법 (domain representative approach)을 사용하여 하위 요인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5가지 문항 묶음(내현적 자기애A, 내현적 자기애B, 내현적 자기애C, 내현적 자기애D, 내현적 자기애E)을 구성하였으며, 폭식 행동은 단일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 알고리즘(radial algorithm)을 사용하여 2가지의 문항 묶음(폭식행동A, 폭식행동B)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에 부합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33.648$ , CFI=.956, T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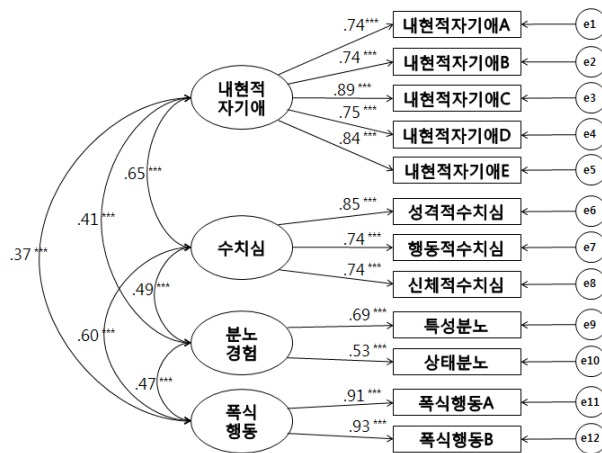


그림 2.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  $p<.001$



.940, RMSEA=.077로 나타났다. CFI와 TLI가 .90이상일 때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RMSEA의 경우에는 .05이하이면 아주 좋은 모형, .08이하는 좋은 모형, .10이하이면 보통 수준의 모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배병렬, 2011; 홍세희, 2000) 측정 모형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며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 행동의 직접 경로와 수치심이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을 매개하는 경로, 분노가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을 매개하는 경로,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과 분노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hi^2=133.648$ , CFI=.956, TLI =.940, RMSEA=.077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경쟁 모형 없이 제안 모형만을 추정하는 단일 연구 모형을 제안하였으나 제안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폭식행동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 모형에서 오설정된 것을 토대로 모형을 재설정 하는 사후적 모형수정(post-hoc model modification)을 통해 대안 모형을 구축하였다. 사후적 모형 수정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문제가 되며 사회 과학의 경우 최소한 표본 크기가 200~400이 되어야 한다(배병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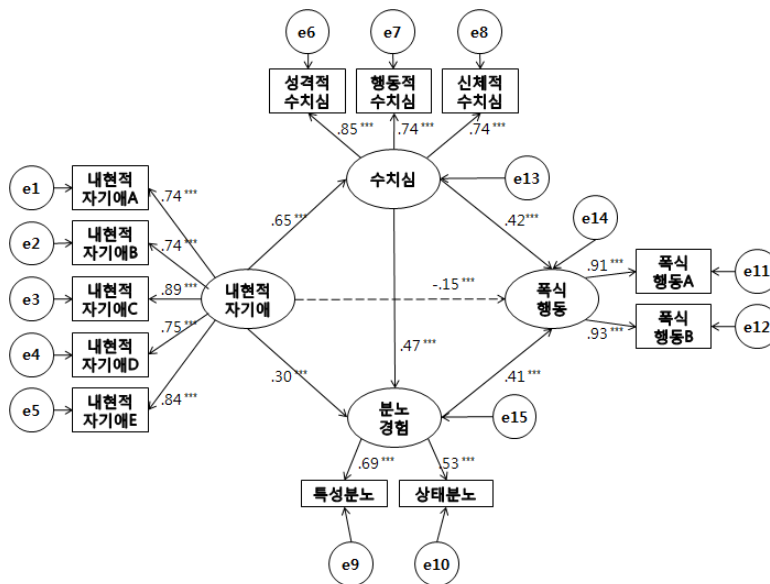


그림 3. 구조 모형 검증

\*\*\* $p < .001$

표 2. 제안 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비교

$\chi^2$	df	p	CFI	TLI	RMSEA	$\Delta\chi^2$
133.648	48	.000	.956	.940	.077	
136.616	49	.000	.955	.940	.077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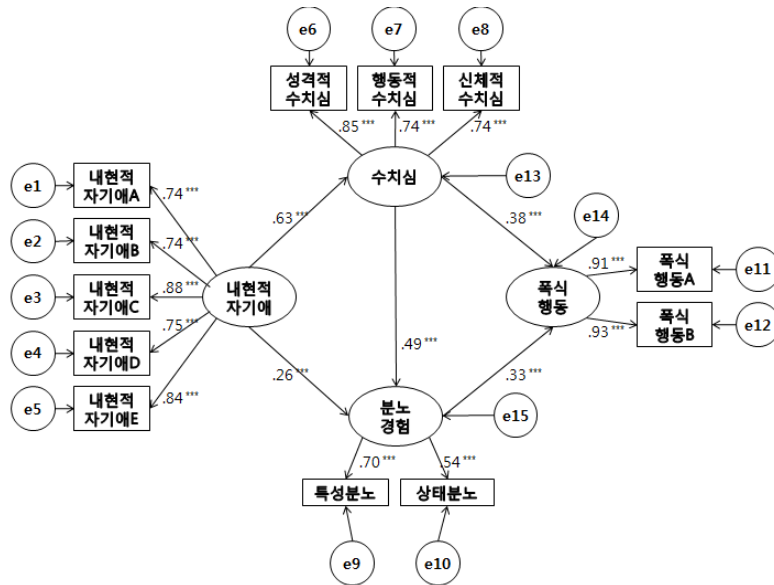


그림 4. 수정된 연구 모형

\*\*\*  $p < .001$

2011). 또한 측정 오차 간에 상관되도록 설정하는 측정 오차 상관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되는데, 본 연구의 제안 모형은 측정 오차 상관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표본의 크기가 300이기 때문에 사후 모형 수정을 진행하였다. 표 2와 그림 4에서 사후적 수정에 따른 추정 결과와 대안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4와 같이 내현적 자기에에서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대안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안 모형과 제안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은 내포되어 있으므로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chi^2$ 의 값이 적을수록, 자유도의 값은

클수록 좋은 모형이며,  $\chi^2$ 의 차이 값이 자유도의 차이 값을 보상할 만큼 충분히 크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유도가 큰 쪽이 좋은 모형이다.

자유도 1차이에서  $\chi^2$ 의 차이가 3.84이상이면 유의 확률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형과 대안 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이 차이가 나면서  $\chi^2$ 의 차이가 =2.96으로 나타나 두 모형 사이의  $\chi^2$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2.96$ ,  $\Delta df=1$ ). 즉, 최초에 제안하였던 모형에서 내현적 자기에가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 1개의 경로를 제거하였지만 부합도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의 손실은 보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은 더욱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도가 더 큰 대안 모형이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더욱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분석을 실시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다중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AMOS에서 보고되는 다중 매개 모델에 대한 간접 효과는 총 간접 효과이기 때문에 각각의 간접 효과를 분리 시켜 제시하지 않고, 합이 제시되어 각각의 경로에 대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텀 변수를 이용하여 모델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각각의 매개 변수에 대한 특정 간접 효과를 확인하고 분석하였다(배병렬, 2011). 이를 위해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 폭식행동, 내현적 자기애 → 분노 → 폭식행동,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 분노 → 폭식행동 각각의 경로에 대한 팬텀 변수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0을 포함 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분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39세 성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수치심 척도, 분노 척도, 폭식행동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 상관 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분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각 변인들은 모두 서로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폭식행동과 내현적 자기애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던 결과와 일치한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Gordon & Dombeck, 2010; Kohut, 1971; Maples, Collins, Miller, Fischer & Seibert 2011). 하지만 구조 방정식에서의 회귀 모형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

표 3. 다중매개모형의 특정간접효과 및 유의도

변인간 경로	Bootstrap estimate		95% CI	
	Estimates	S.E	lower	upper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 폭식행동	.290*	.039	.138	.290
내현적 자기애 → 분노 → 폭식행동	.099*	.020	.017	.099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 분노 → 폭식행동	.076*	.013	.021	.076

주. \* $p < .05$ . number of Bootstrap=2.000

행동의 직접적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인 효과가 감소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폭식행동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력이 수치심과 분노에 의해 설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을 단순한 인과관계로 이해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수치심, 분노와 같은 매개 변인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상관 분석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수치심, 분노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치심과 분노는 각각 다시 폭식 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 분노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 분노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폭식행동에서 중요한 정서 변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간의 경로에서 수치심이 완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경향이 높을수록 수치심 경향이 높아지며(한혜림, 2004), 폭식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이 폭식을 하기 전에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보고하였다는 선행 연구들(Sanftner & Crowther, 1998)을 지지한다. 또,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간의 경로에서 분노도 완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분노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고(백승혜, 현명호, 2008), 상태 분노나 특성 분노가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Smith, Hillard & Roll, 1991; Fassino, Leomburni,

Piero, Abbate-Daga & Rovera, 2003; Waller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수치심이나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폭식행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영석(2010)은 특히 예측 변인이 준거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변인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예측 변인이 아니라 매개 변인에 초점을 두어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폭식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현적 자기애 보다는 수치심과 분노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수립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수치심은 분노에 선행하여 순차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체 자기(entire self)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수치심이 유발되면, 이러한 강렬한 정서를 회피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적대감과 분노를 타인에게 향하는 방식으로 수치심이 대치되며(Tangney et al., 1996), 기능적 분노 표현 방식보다는 역기능적 분노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최임정, 심혜숙, 2010). Lewis(1971)와 Scheff(1987)에 의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를 작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며 자신에게 적대감과 비난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이들은 수치심 경험으로부터 자기를 구제하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자기 외부에 대한 분노로 전환하여 손상된 힘과 통제 감을 회복하려고 한다(Lewis, 1971). 한편,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다루어야 할 분노가 많다(Ta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a).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보다 자주 분노한다는 사

실은 이들이 평상시에 특성 분노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성 분노가 높은 사람은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상태 분노를 경험하게 되며(Spielberger et al., 1988), 따라서 더 많은 분노 경험을 하게 된다. 상태분노와 특성 분노는 기존 연구들에서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Hatsukami, Owen, Pyle & Mitchell, 1982; Brunner, Malony, Daniels, Mays & Farrell, 1989), 특히 특성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분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방식인 폭식 행동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ielberger et al., 1988). 이 결과를 상담 장면에서 적용한다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폭식행동에 대한 개입을 고려할 때,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적 정서들 중 수치심과 분노를 순차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심과 분노가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간의 경로를 완전 매개함이 밝혀졌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 간의 경로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순차 매개함이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폭식행동의 증가를 예측하는데 수치심과 분노가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의미한다. 이를 상담 장면에서 적용한다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들이 경험하는 핵심적 정서인 수치심, 분노를 완화시키는 것이 폭식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성격적 특성인 내현적 자기애를 완화시키는 것 보다 매개 변인인 수치심, 분노를 다루는 것이 폭식행동을 줄이는데 더 수월한 개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더 효과적인 상담 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치심과 분노의

순차 매개 효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 중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수치심으로 인하여 분노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폭식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부적 정서 중에서 수치심이 핵심적인 변인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으로, 상담 장면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폭식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에 분노의 완화 뿐 아니라 수치심의 완화를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치심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에는 마음 챙김과 자기 자비가 있다. 오세미(201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음 챙김 명상 집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비판단적인 수용을 통해 자기 평가적 사고와 느낌에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회피하기 위해 폭식을 하지만, 폭식 행동 경험 이후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다시 수치심을 느끼는 수치심-수치심 주기(Shame-Shame cycle)를 겪는다(Goss, Gilbert, 2002). 자기 자비 훈련은 고통과 결점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훈련으로 수치심-수치심 주기의 악순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Adams & Leary, 2007), 이를 통해 폭식 행동의 발생뿐만 아니라 유지에도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표본을 여대생에서 20~30대 성인으로 확장하였다. 신경성 폭식증은 20대 초반의 성인기 초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따라서 대부분의 폭식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그 표본을 20대 초반인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건강 보험 평가 심사원(2018)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 통계 100선’에 의하면 30~39세의 여성들은 20대 여성들(33.2%)에 뒤이어 24.6%로 전체 폭식증 환자 수 중 두 번째로 신경성 폭식증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식행동은 20대 초반인 여대생뿐만 아니라 길게는 중년기 이전까지의 여성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중반 이후의 성인 여성에 대한 폭식 행동 연구는 이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39세 사이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임상 집단에 일반화를 하기에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임상 집단 등 다양한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해보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표본을 20대 초반의 여대생에서 20~39세의 여성으로 확대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폭식행동은 20대 초반의 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남성 집단 및 20대 중반 이후에서도 폭식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폭식행동에 대한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를 확장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폭식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영복 (2002).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행동간의 관계: 중재 변인의 탐색.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건강 보험 평가 심사원 (2018). 생활 속 질병 통계 100선. 발간 등록번호 GOOOFJ1-2018.20.
- 김미리혜 (2008). 폭식행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605-621.
- 김정옥 (2000). 섭식장애. 서울: 학지사
- 김종윤, 양민정 (2015).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5(7), 545-565.
- 김진순 (2008). 성공-실패 피드백에 따른 외현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부적 정서, 자존감, 능력 귀인 여부.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학지사.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 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상 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 매개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63-679.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 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pp 383. 450-451.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감, 분노 경험 수준 및 분

- 노 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손은정 (2013). 여대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불일치, 지각된 사회적지지,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309-330.
- 신동주, 정남운 (2007). 여대생의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77-94.
- 신민기 (2010). 청소년의 신체 불만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 및 신체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미 (2019). 폭식행동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자비 명상의 효과 비교: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 조절곤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화영 (1996). 여대생의 폭식행동, 우울 및 귀인양식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욱, 송현주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정서 조절 전략, 대인 관계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고찰.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65-83.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조효진 (2008).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97-492.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dams, C. E., & Leary, M. R. (2007). Promotion self-compassionate attitudes toward eating among restrictive and guilty eat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 1120-1124.
- Ahktar, S.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escriptive features and differential diagnosis. *Psychiatric Clinic of North America*, 12, 505-530.
- Ahk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 (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Th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 29-42.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runner, R. L., Malony, M. J., Daniels, S., Mays,

- W., & Farrell, M. (1989). A Controlled study of type A behavior and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stress in anorexia nervosa. *Psychiatry Research*, 30(2), 223-230.
- Burney, J., & Irwin, H. J. (2000). Shame and guilt in woman with eating-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51-61.
- Fahy, T., & Eisler, I. (1993). Impulsivity and eating disorder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2), 193-197.
- Fassino, S., Leomburni, P., Piero, A., Abbate-Daga, G., & Rovera, G. G. (2003). Mood, eating attitudes and anger in obese women with and without binge eating disorder.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4(6), 559-566.
- Gordon, K. H., & Dombeck, J. J. (2010). The associations between two facets of narcissism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Eating Behaviors*, 11, 282-292.
- Goss, K., & Gilbert, P. (2002). Eating disorders, shame and pride. *Body shame: Conceptualisation, Research and Treatment*, 219-256.
- Hatsukami, D., Owen, P., Pyle, R., & Mitchell, J. (198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the MMPI between women with bulimia and women with alcohol or drug abuse problems. *Addictive Behaviors*, 7(4), 435-439.
- Hayaki, J., Friedman, M., & Brownell, K. D. (2002). Shame and the severity of bulimic symptoms. *Eating Behaviors*, 3(1), 73-83.
- Heartherton, T. F., & Baumeister, R. F. (1991). Binge-eating as escape from self-awareness. *Psychological Bulletin*, 110, 86-108.
- Herzog, D. B., Keller, M. B., & Larvori, P. W. (1988). Outcome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6(3), 131-143.
- Hilbert, A., & Tuschen-Caffier, B. (2007). Maintenance of binge eating through negative mood: A naturalistic comparison of binge eating disorder and bulim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0, 521-530.
- Johnson, G., Cohen, P., Kotler, L., Kasen, S., & Brook, J. (2002). Psychiatric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5), 1119-1128.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ug, I., Bulik, C. M., Vall-Liovera, O. N., Granero, R., Agüera, Z., Villarejo, C., ... & Fernández-Aranda, F. (2008). Anger expression in eating disorders: Clinical, psychopathological and personality correlates. *Psychiatry Research*, 161(2), 195-205.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The Psychanalytic Reviews*, 58(3), 419-438.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Manjrekar, E., Schoenleber, M., & Mu, W. (2013). Shame aversion and maladaptive eating-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Eating Behaviors*, 14, 456-459.
- Maples, J., Collins, B., Miller, J. D., Fischer, S.,



- & Seiber, A. (2011). Differences between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and bulimic symptoms in young women. *Eating Behaviors*, 12, 83-85.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Milligan, R. J., Waller, G. & Andrews, B. (2002). Eating disturbances in female prisoners: The role of anger. *Eating behaviors*, 3(2), 123-132.
- Sanftner, J., L., & Crowther, J. H. (1998). Variability in self-esteem, mood, shame and guilt in women who bing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 391-397.
- Scheff, T. J. (1987). Editor's introduction: Shame and related emotions: An Overview.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Beverly Hills)*, 38(8), 1053-1059.
- Schlesier-Stropp, B. (1984). Bulimi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95(2), 247-257.
- Smith, J. E., Hillard, M. C., & Roll, S. (1991). Rorschach evaluation of adolescent bulmics. *Adolescence*, 26(103), 687-696.
- Smith, M. C., & Thelen, M. H. (198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est for bulim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5), 863-872.
- Spielberger, C. D. (1996). *Manual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scale*. Port Huron, Mi: Sigma assesment system.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89-108), New York.
- Stephen, E. M., Rose, J. S., Kenny, I., Rosselli-Navara, F., & Weissman, R. S. (2014).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un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s: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 16.
- Sung EJ (2010). Metabolic Syndrome and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1), 7-11.
- Tagney, J. P., Barlow, D. H., Wagner, P., Marschall, J. E., Borenstien, J. K., Saftner, J., Mohr, T., & Garmzow, R. (1996).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 in consturctive versus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80-196.
- Tagney, J. P., Wagner, P., Fletcher, C., & Gramzow, R. (1992a). Shamed in 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anofsky-Kraff, M., Shomaker, L., B., Olsen, C., Raza, C. A., Wolkoff, L. E., Coulmbo, K. M., & Yanovski, J. A. (2011). A Prospective study of pediatric loss of control eating and psychological outcom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 108-118.
- Thelen, M. H., Farmer, J., Wondelich, J., & Smith, M. C. (1991). A revision of the Bulimia Test: BULIT-R. *Psychological Assessment*, 3, 119-124.
- Thomaes, S., Stegge, H., Olthof, T., Bushman, B.

- J., & Nezeck, J. B. (2011). Turning shame inside-out. "Humiliated fury" in young adolescents. *Emotion, 11*(4), 786-793.
- Van Strien, A. J. (2000). From monitoring data to policy-relevant summary statistics. In Helbig, A. J. & Flade, M. (eds.), *Bird numbers 1998. Where monitoring and Ecological Research Meet; Proceedings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BCC. (suppl.)* (pp, 120, 67-73). Die Vogelwelt.
- Vince, E. P., & Waller, I. (2008). A set of meta-analytic studies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isordered eating. *The Internet Journal of Mental Health, 5*(1).
- Waller, G., Babbs, M., Milligan, R., Meyer, C., Ohanian V., & Leung, N. (2003). Anger and core beliefs in the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4*(1), 118-124.
- Williamson, D. A., Kelly, M. L., Davis, C. J., Ruggiero, & Blouin, D. C. (1985). Psychopathology of eating disorders: A Controlled comparison of bulimic, obese and normal subj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2), 161-168.
- Zeeck, A., Stelzer, N., Linster, H. W., Joes, A. & Hartmann, A. (2011). Emotion and Eating In Binge Disorder and Obestiy.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9*(5), 426-437.

원 고 접 수 일 : 2021. 0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9. 03

게 재 결 정 일 : 2021. 10. 25

## **Women's Covert Narcissism and Binge Eat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Anger**

**Jo A Ra**

Songp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1388 Support Group

**Park Jae Woo**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and ang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binge eating behaviors. Three hundred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39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hame and anger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binge eating behavior. Second, shame and anger sequentially double-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binge eating behavio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hame, anger, covert narcissism, and binge eating behavior. Finally, the study'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binge eating behavior, shame, anger, women